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10. 11(목) / 총 2매(본문 2매)
담당 부서	민자철도팀	담당자	• 팀장 김태형, 사무관 이광민, 주무관 변상엽 • ☎ (044) 201-3982, 398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「국토부, GTX-A 연내착공 맞추려 수백억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 보냈다」 보도 관련

□ 수도권 교통난 불편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은 10년 이상 장기 지연되어 옴에 따라,

-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지침 규정(제84조제5항)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,(신안산선 4월, 수도권광역급행철도 5월)

<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(2018년) >

제84조(협상)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- 우선협상대상자가 이에 응하여 실시설계를 시행 중이며, 만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대상자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의 책임은 협상결렬 등의 귀책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.
-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한 사례*는 다수 있으며, 기사와는 달리 주무관청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요청한 선례도 다수 있습니다.

* 신분당선(용산-강남), 서부내륙고속도로, 포천화도고속도로, 서울제물포터널, 우이신설선, 신림선 등

□ 또한,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은 현재 협상대상자와 원활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, 우리부는 해당 사업들이 장기 지연되어 온 만큼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10.11) >

- ◆ 국토부, GTX-A 연내착공 맞추려 수백억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 보냈다
 - 신한은행에 협상과 실시설계 병행 요구, 협상 중에 정부의 이런 공문 극히 이례적
 - 정부 규정엔 사업자 책임 하에 가능 명시, 수백억 드는 실시설계, 통상 협상 뒤 착수
 - 협상과 병행했다 결렬되면 자칫 큰 손실, 신한은행측 “공문근거로 실시설계 착수”
 - 전문가 “연내착공 위해 정부가 큰 무리수, 협상결렬 시 수백억 물어줘야 할 위험”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이광민 사무관(☎ 044-201-36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